

■ 국민학생부 ■

가작상 &lt;한국발명특허협회 회장상&gt;

## 소라는 왜 빛을 싫어할까

김 미 영

경남 소남국민학교 제 6학년

우리 학교 옆에는 경호강의 푸른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호강 때문에 여름 방학만 되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늘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어느날 깊은 밤, 동네 친구들이 몰려와 소라를 잡으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나는 참 이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나무라며 “왜 이 밤중에 가니, 무섭게?” 하며 빙 둘러 있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친구인 한 아이가 불쭉 앞에 나오면서 “이 바보야, 소라는 빛을 싫어하지 않니?” 하면서 나를 나무랐습니다. 나는 이때부터 ‘소라가 왜 빛을 싫어 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이 까닭을 알기 위해 많은 실험을 해보았지만 왜 그런

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실험해 보았습니다.

① 어항에 모래만 넣고 소라를 넣었다. ② 어항에 돌맹이 하나만 넣고 소라를 넣었다.

③ 모래, 돌맹이 두가지를 다 넣고 소라를 넣었다.

이상과 같이 실험해 보았지만 그 결과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왜, 소라는 빛을 싫어하는 것일까?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가 선생님께 여쭙어 보아도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께도 여쭙어 보고, 또 책을 보았지만은 그 답만은 캐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실험을 해보아도 소용이 없었다. 나의 꿈은 훌륭한 발명가가 되는 것인데, 어릴 때부터 총명해야 훌륭한 발명가

가 될 수 있다고 어른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런것 하나 일찍 알아보지 못한 나를 꼭 원망합니다.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과 이웃 아주머니들께선 밤마다 바구니나 주전자를 들고 나가셔서 소라를 많이 잡아 시장에 내다 파십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 소라를 많이 먹으면 우리의 몸 건강에 참 좋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소라가 밤만 되면 나오고 낮에는 안나오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생을 마칠 때까지라도 이 소라가 왜 빛을 싫어하는가를 꼭 알아내어 이 소라를 잡는 사람이 늘어나서 외국같은 곳에 팔아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 못살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 주어서 잘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라가 빛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게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꿈을 훌륭하게 만들려면 내가 궁금해 하는 것을 먼저 풀어 놓고 다음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라는 왜 빛을 싫어하는가?’

빛을 싫어하는 것은 소라뿐만

아니라 물밑에나 물 바닥에 기어다니는 것등 소라와 생활이 비슷한 고동, 우렁이등이 있습니다. 내가 궁금해 하는 의문을 풀고 우리나라가 잘사는 선진 조국이 되게하기 위하여, 자라서 훌륭한 발명가가 되어 이 나라를 온 세계의 나라로 이름을 떨쳐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발명이

나, 조사, 관찰을 하려면 우선 할 것 없는 것 같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망설이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관심을 갖고 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연구의 대상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계속 소라가 빛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기 위하여 열심히 관찰해보겠다고 다짐합니다. <㉞>

우려가 있지 않니?”

아빠 말씀을 듣고 다시 연구해 보았다.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다. 즉 바깥으로 같이 나오는 하나의 구멍을 두개로 만들어 서로 떨어져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에서 선이 끊어져도 분리대 때문에 합선될 염려도 없고 밖으로 나오면서 끊어져도 두 전선이 분리되어 합선될 염려는 없겠다.’

역시 스케치 해본 뒤 아빠께 가지고 갔다.

“정말 훌륭하구나. 네가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다니 기특하다. 마침 내일이 일요일이니 같이 만들어 보자.”

이튿날 아빠와 나는 곧 개량 플러그의 모형을 만들었다. 이것을 엄마께서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머, 좋구나. 다음부터 플러그 고장 걱정안해도 되겠다.”

이어서 오빠가

“나도 할 수 있는 건데…….라 말하며 우리 식구 모두 웃었다. 그 뒤 나의 개량 플러그는 진짜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개량플러그는 원리가 간단하고 생산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합선을 방지하므로써 화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발명품인 이 개량플러그는 아직도 아무탈 없이 우리 집에서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다. <㉞>

## 중학생부

### 가작상 <한국발명특허협회 회장상>

## 개량 플러그

박 효 진

충북 여자중학교 제 2학년

“어머! 깜짝이야.”

전기 밥솥의 플러그를 꽂고 계시던 엄마께서 외치셨다. 플러그에서 번쩍하는 빛이 생겨서였다. 내가 옆으로 가서 보니 플러그의 전선이 타 있었다.

“이거 원, 플러그가 이 모양이니 밥도 못짓겠고……. 이렇게 고장이 잦아서야 어디 쓸 수 있겠어?”

내가 생각해도 시중의 플러그는 너무 고장이 잘 난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용품들을 봐도 제일 먼저 고장나는 것이 플러그이다. 그래서 난 전부터 플러그의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을 방지하고 싶었다. 그 날 저녁 아빠께 나의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좋다고

하시며 연구용으로 플러그 2개를 주셨다. 나는 곧 플러그의 내부구조를 살펴 보았다. 별다른 점은 찾아볼 수 없어서 낮에 고장났던 플러그를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플러그의 내부에 두선이 같이 붙어있는데 한개의 전선이 끊어지자 끊어진 조각들이 옆의 전선에 닿았기 때문에 합선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가 생각해 본 것이 두 전선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이 생각을 종이에 스케치해 본 뒤에 아빠께 가지고 갔다.

“매우 좋은 생각이구나, 그런데 밖으로 같이 빠져나온 이 전선은 끊어지면 다시 합선될